# 행성을 뒤흔든 조선의 9월

충격과 감격의 련속으로 만인을 격동시킨 조선의 9월이였다.

9월!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장장 75성상의 기나긴 려정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남다른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부풀어오르는 9월이다.

공화국이 창건되여 75번째로 찾아온 이 9월에 이 땅의 모든이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흥분시키고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펼쳐진 잊지 못할 순간순간들이 날이 갈수록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뒤흔들고있다.

뜻깊은 9월이 저물어가는 이 시각 사람들은 가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올해 9월의 날과 날들에 새겨진 불멸의 화폭들을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공화국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9월 8일.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이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공화국의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렸던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진수신호가 내리자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은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신형잠수함이 바다에 떠오르던 력사의 그 순간을 잊을수 없어 외우고 또 외우고있다.

못 잊 을 그 날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김군옥영웅》함은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였지만 단 4척의 작은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자처하던 미제의 중순양함을 수장시키는 세계해전사에 처음으로 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고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싸워온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이다.

그렇듯 영광넘치는 기적과 빛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해군무력이 오늘은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받아안는 력사적인 시각을 맞이하였으니 어찌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을수 있으랴.

세상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사변적순간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드리였다.

## 공화국인민들과 청년들의 힘을 과시한 대정치축전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며 충성의 한마음 안고 달려온 9월의 축전장들마다에 차넘치던 끝없는 인민의 환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그중에서도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과 청년전위들의 횃불야회는 참으로 가슴벅찬 광경이였다.

그날의 광경앞에 세계는 다시금 똑똑히 목격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세상에 없는 힘이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특유의 절대적힘이다.

9월의 열병광장을 진감하며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인민의 발구름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인민의 자랑스러운 발구름이였고 조국앞에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면 일터마다에 울리던 혁신의 노래를 원쑤에 대한 증오의 함성으로 터쳐올리며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설 전민항전의 의지가 만장약된 이 나라 인민들의 불타는 맹세의 발구름이였다.

《저 열병대오속에 우리 남편과 아들이 다 서있습니다. 만약 원쑤들이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저도 손에 총을 잡고 온 가족이 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군대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인민이 서있는데 그 무한대한 힘을 과연 어느 누가 당해낼수 있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힘이 솟고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집니다.》

이렇게 터치던 목소리에 이 나라에 태를 묻은 남녀로소모두의 마음이 어려있었다.

경축의 그밤 김일성광장을 불의 바다로 뒤덮었던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는 또 얼마나 장엄하고 장쾌한 열병행진이였던가.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나라에서 인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람홍색국기의 펄럭임소리를 들으며 자라난 이 나라의 청년들.

그들이 손에손에 추켜들었던 이글거리는 홰불은 그대로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의 분출이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갈 충천한 기세였다.

TV화면에 펼쳐지는 《계승자》, 《우리는 청춘》, 《빛나는 조국》, 《태양조선》, 《절세의 영웅》, 《일심단결》, 《인민의 나라》, 《애국청년》, 《결사관철》 등 새겨지는 장엄한 글발마다에서 세인은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이 나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았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힘을 더욱 절감할수 있었다.

그 힘으로 공화국은 영원히 백승만을 떨쳐갈것이다.

##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낮과 밤

9월 12일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온 나라 인민들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2일 새벽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꼼쏘몰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하시여 유.아.가가린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

매일매일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한초한초, 하루하루가 이 땅에 흘렀다.

가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고바라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이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눈굽을 뜨겁게 적시며 보다 큰 사업성과로 보답할 맹세로 심장을 끓이였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의 태양이시다.

언제나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을 따사로운 넓은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손길을 놓으면 삶의 전부를 잃게 되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 손길 꼭 잡고 그 품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이런 인민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이루었다.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이 밝고 그리움으로 잠들줄 모르는 이 땅에 보답의 마음들이 떠올리는 성과들은 그대로 위훈이고 기적이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이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더큰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만고절세위인,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이 나라 천만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맹세의 분출이다.

## 전인민적인 애국열로 끓어번진 9월

뜻깊은 9월에 애국충정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기치를 남먼저 추켜든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뒤를 따라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년돌격대원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김정숙평양메사공장의 2년분계획완수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였다. 이들만이 아니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부문의 수많은 혁신자들도 자기 정량의 2배, 3배이상의 기대를 맡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얼마전에는 군수공업,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파종기를 비롯한 1만여대의 농기계들이 가을걷이와 탈곡,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로 들끓는 농장들에 집중수송되였다.

당이 안겨준 애국청년이라는 값높은 부름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각지의 청년들도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증산과 혁신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지만 특히 올해 공화국에서 더욱 이채를 띠는 가슴호뭇한 풍경이 있다.

그것은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기쁨으로 웃음꽃 피우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이다.

례년에 없는 흐뭇한 작황이 펼쳐진 농장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어버이의 천만로고를 돌이켜본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영농물자보장으로부터 관개건설, 강령호담수화공사 등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대해 전하자면 끝이 없다.

잊지 못할 지난 8월에는 몸소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찾으시여 침수된 농경지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농장벌에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하기에 농장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전야마다에 찾아온 황금가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것이라고 격정을 터치는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마련된 훌륭한 작황이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는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가고있다.

* * *

9월 이 한달동안에만도 공화국에서 인민의 기쁨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행복의 재부도 늘어났다. 공화국의 오늘과 미래는 9월의 푸르청청한 하늘처럼 밝게 펼쳐져있다.

감동과 충격, 환희의 9월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잊지 못할 9월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면서 온 나라 인민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사랑하는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눈굽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위민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영광과 행복으로 넘치는 공화국의 9월이 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은 이 땅에 무수히 새겨지는 사변들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단상

## 《복받은 대지》

《복받은 대지》!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안변군 월랑농장의 근로자들이 농장벌에 깃든 뜨거운 사연과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정을 세상에 전하고저 풍작이룬 포전에 크게 새긴 글발이다.

지금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침수되였던 포전들에 펼쳐진 풍년작황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태풍피해발생초기 즉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현장에 내려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복구사업을 내밀도록 하시고 강원도 주둔부대들에 필요한 력량을 긴급이동전개시켜 태풍피해를 속히 가시기 위한 전투를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아직 큰물이 찌지 않은 복구현장을 찾으시고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방안들도 밝혀주시며 피해복구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아오르고 땅우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목숨으로 지키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절대사명으로 간직한 인민군군인들이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 결과 빠른 시간내에 강하천제방복구가 성과적으로 끌나게 되였다.

최대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알곡수확고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급히 영양관리대책을 따라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를 또다시 찾으시여 직승기와 경수송기들의 농약살포사업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으며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자연의 피해를 가셔낸 이 지대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정,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포전들에는 잘 익은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침수피해를 받았던 땅에 만풍년의 가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을 전하고저 이곳 농장원들은 월랑농장의 포전에 《복받은 대지》라는 글발을 크게 새기였다.

복받은 대지가 어찌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포전들만이라고 하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온 나라의 전야가 황금이삭 물결치는 복받은 대지로 되였다.

김철진

## 세번이나 불러주신 이름

우리 공화국인민들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사는 인민은 없다.

나의 아버지도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한생을 빛내인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얼마전 공화국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아침에 《로동신문》을 펼쳐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는것을 전하는 보도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솟구쳐오르는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보도문의 글줄을 읽어내려갈수록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으로 더욱 끓어번지고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듭거듭 불러주신것이였다. 벌써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세번씩이나 나의 아버지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월 오중흠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사신의 영웅정신을 길이 기록한 김군옥, 채정보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해군용사들의 불굴의 전투정신이 새세대 해병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리의 항로를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해군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방문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에서도 영광스러운 조선해군무력의 군기들에는 김군옥, 채정보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해군용사들이 피와 목숨으로 새겨넣은 불굴의 전투정신이 고귀한 귀감으로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갈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아버지의 이름을 달아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라없던 그 시절에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였던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거지》로 불리우며 이역땅에서 신문배달과 우유배달로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던 나의 아버지였다.

그런 수난자였던 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병이 되였고 공화국영웅으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다 아 는 바 와 같 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제2어뢰정대 해병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주어야 하겠다고, 어뢰정대를 잘 지휘하여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기여를 한 제2어뢰정대 정대장과 2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제22호어뢰정 정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시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기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군 하는데 사실 그 기적의 창조자는 우리 수령님이시라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싸웠기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하군 하였다.

아버지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아버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후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값높은 생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아들로서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 아버지는 값높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아버지가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것은 결코 아버지 일개인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우리 온 집안, 아니 전승세대의 후손들이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김군옥일가는 위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아버지가 그러했던것처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혈충신, 참된 애국자들로 한생을 빛내이겠다.

김해림
(김군옥영웅의 아들)